

## 知性共同體와 主體性的 問題



慶北大 總長 徐 元 燮

### I

근래에 와서 한국의 大學社會는 대학의 교육이념에 관한 철학적인 반성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根源的인 반성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현실성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계기는 아마도 소위 '현대사회의 危機意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수성은 과학·기술·산업의 普遍化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근원적으로 서구적·서양적 현상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학·기술·산업이라는 복합체는 아무때도 物量的·手段的인 세계에 속할 터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곧 精神的·理念的 세계가 그만큼 위축·퇴색되고 無力化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른바 人間喪失·自己疎外라는 현대문명의 위기의식 또는 현대사회의 아노미(anomie) 현상이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산업사회의 위기 의식과 병리 현상은 한국의 현대사회에 二重的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水平的인 문제가 사회적 연대성의 약화 내지는 해체라 할 수 있다면, 근원적으로 서양적인 산업문명과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정신문화의 불가피한 共生(symbiosis)은 垂直的인 歷史的 연속성의 약화 내지는 단절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疎外와 疎外克服의 문제를 主體性的인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면, 한국의 현대사회는 社會的·水平的인 연대성의 단절이라는 세계 일반적인 문제와 함께 歷史的·垂直的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제를 二重的으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에게 主體性的인 문제가 현대사회와 관련하여 제기될 때, 우리는 그것을 社會的이고 歷史的인 二重的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社會는 一般社會의 縮小型이자 理念型인 模型社會(Paradigm Society)로 해석될 수 있겠다. 大學의 가장 古代的이고 典型的인 史例라 할 그리이스의 아카데미는 一般社會의 理念型에 가깝고, 가장 현대적 流行(currency)인 종합대학(university, 또는 multiversity)은 일반사회와 축소형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기에 현대의 사회 문제는 가장 전형적으로 대학사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의 문제는 대학에도 존재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학사회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二重的인 主體性的인 문제는 곧 한국의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大學社會가 맡고 있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한국 사회의 이

중적인 주체성의 문제는 한국 대학에게는 이중적으로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이미 한국의 대학이 위태받고 있는 時代的·歷史的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성에 비추어 비로소 대학의 다른 문제들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학문의 순수성과 실용성, 전문교육과 교양교육,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통제, 대학의 세계성·보편성과 지역성·특수성, 과학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대학교육의 대중성과 탁월성, 고전교육·인간교육과 기능교육·직업교육, 아카데미즘과 앙가주망 등의 문제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떠나서 추상적·사변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실례를 들어 소위 ‘知性人의 現實參與’라는 문제만 보아도 얼마나 추상적으로 논쟁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현실에 참여하느냐 상아탑 속에 안주하느냐, 體制肯定的 參與나 體制否定的 參與나 하는 잘못 제기된 문제를 두고 기성인과 젊은 세대, 정부와 대학, 교수와 학생, 보수파와 급진파 사이에 얼마나 공허하고 자기만족적인 논쟁이 수행되어 왔는가.

필자는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시시비비를 왈가왈부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 이념, 또는 대학교육의 이념에 관한 거창하고 장광스러운 논설을 늘어 놓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大學의 理念, 敎育의 原理, 學問의 自由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학계의 상식으로 된 것을 보다 더 명석하고 평이하게 再構成함으로써 우리의 대학과 대학교육을 정직하고 건전하게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우리는 대학을 ‘지성공동체’로 이해하며 대학교육의 근본 문제를 주체성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한다.

## II

대학인들은 대학을 ‘眞理의 殿堂’이니 ‘知性人의 廣場’이니, 또는 ‘自由의 터전’이라고 부르면서 막연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진리’, ‘자유’, ‘지성’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들이 유독 대학사회의 특성, 상징 또는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아가서 現代技術社會에서 진리·자유·지성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현대의 대학이 어떻게 이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지성인과 대학사회가 ‘현대사회’를 대중적인 의미로 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 古典的인 대학 이념인 진리·자유·지성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랴. 바로 여기에 대학 지성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다.

‘진리, 자유, 지성의 전당’을 ‘知性人의 共同體’로 바꾸어 생각해 보자. ‘지성인’이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성을 그의 존재의 근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지성이란 무엇인가? 물론 지성은 알고자 하는 성품이요, 알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무엇을 아무렇게나 알고자 하는 성품이나 알 수 있는 능력이 모두가 지성인 것은 아니다. 심심풀이나 오락으로 아는 것도 지성이 아니며, 기계적·기교적으로 아는 것도 지성이 아니고, 타성적·반복적으로 아는 것도 지성이 아니다. 지성은 創意的으로 아는 것이며 主體的·自覺的으로 아는 것이요, 궁극적이고 普遍的인 것을 아는 것이다. 지성은 참을 참으로 알고자 하는 순수한 호기심이며, 현실적인 정열이요, 경건한 사랑이다.

진리는 바로 이러한 지성에 드러나는 存在의 現身이다. 知的 호기심이 순수하지 못할 때 존재의 모습은 歪曲되고, 지적인 정열이 현실적이지 못할 때 존재의 응답은 無氣力하며, 지적 사랑이 경건하지 못할 때 존재의 秘義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려는 지식욕은 존재를 능멸하고 착취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현신도, 경건도, 성실성도, 순수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만인의 사랑과 찬미와 예배의 표적이 될 진리는 것들이지 않는다. 지성인의 진리는 지식인의 技藝과 달라서 存在와 合一하는 全人의 人格으로만 마주칠

수 있다. 儒家들이 格物·致知를 誠意·正心과 並進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바로 知性人의 眞理 탐구 원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리에 못지 않게 大學과 知性人이 애호하는 또 하나의 이상과 가치가 自由이다. ‘자유’란 문자 그대로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自己原因(causa sui)이 바로 自由이다. 이 세상의 모든 事物은 他者原因에 의한 인과관계의 產物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독 精神만이 自己原因이며 完全한 精神, 純粹精神, 絕對精神인 神은 완전한 自己原因, 곧 創造的 主體이다. 인간이 단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다름아닌 이 神性 또는 精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하는 主體性이며 自由와 創造性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가지는 존재이다. 자유의 능력이 지성이며 지성은 자유롭다. 자유만이 진리를 알려 진리만이 자유를 享受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성·진리·자유는 모두가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성격, 인간 중에 있는 神性, 인간의 본질적 성품이며 곧 主體性이기도 하다.

大學은 知性人의 共同體이다. 저능아나 미성년자의 모임이 아니라 성숙한 理性人의 모임이며 그러기에 ‘小人之學’이 아니라 陽明先生의 말대로 ‘大學’은 ‘大人之學’이라 하겠다. 大學은 노예나 하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自由人, 主體的 인간들의 모임이다. 대학은 지식인·기능인의 모임이 아니라 지성인의 광장이다. 지성인의 모임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結社體가 아니라 참을 참되게 추구하는 참마음들의 모임, 곧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共同體이다. 즉 知性共同體는 본질적으로 人間的·社會的이며, 教育的이다.

教育的의 典型이 大學教育인 것은 바로 대학이 知性人의 共同體이고 共同體는 언제나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教育이나 敎養은 무슨 기술이나 예능을 기르고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천성을 敎育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우며 이 자유로운 본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진리 탐구의 지성이다. 그렇다면 진리·자유·지성은 共同體的 性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학은 교육의 공동체요, 대학교육은 공동체의 교육일 수밖에 없겠다. 지성이 자유롭게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이라면, 지성인의 공동체는 공동으로 진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공동체적 지성일 터이기 때문에 지성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교육적이다.

우리는 가끔 大學人들이 교육자로 자처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이제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문제는 다만 어떻게 학생을 교육하는 것인가에 있다고 망상하는 非知性人을 목격한다. 오직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거늘 이미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진리와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파는 지식인·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기술이나 전공지식만을 권위나 자격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研究所나 技術院의 피고용인은 될지언정 지성 공동체의 온전한 파트너십과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III

지성을 지식으로부터 구별해 주고, 자유를 방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진리를 約定(convention)이나 敎條(dogma)와 혼동하지 않게 해 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主體性이었다. 우리는 근자에 와서 자주 敎育 또는 大學教育과 관련하여 主體性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 ‘主體的 敎育’, 또는 ‘主體性 있는 敎育’, 혹은 ‘敎育의 主體性’을 이야기할 때 과연 주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外國敎育의 모방이나 국적 없는 國際敎育에 대해서 民族의 主體性을 강조하는 교육일 것이요, 다음으로 그것은 大學外的, 특히 政治的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自由로운 大學의 主體性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主體性 敎育은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

를 갖는다. 마치 공동체적 교육이 공동체가 하는 교육이며 교육내용이 공동체적이고 공동체를 창조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process)과 교육 양식이 공동체적인 교육을 의미하듯이, 주체적 교육은 주체가 주체적으로 주체를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행정이 주체적이라고 해서 교육의 主體가 주체적이라 할 수 없다. 행정가도, 교수도, 학생도 모두가 교육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공동체를 주체적인 자각에 입각해서, 즉 지성·자유·진리에 입각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체적 교육은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활동 전체가 주체적일 때만 그 진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즉 교육의 過程이 知性·自由·眞理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그 교육을 주체적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체적 교육은 교육목표가 主體性의 涵養·啓發임을 의미한다. 주체성의 함양과 계발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기껏해야 혼련이거나 숙달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성의 계발 이외 그 어떤 다른 목표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대학교육은 각별히 교육적이고 인간적이다.

주체성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해야 할 또 하나는, 주체성을 主觀性이나 任意性과 구별하는 일이다. 주체성이란 각자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뜻하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주체적이라고 해서 객관성·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체성은 우선 자기 자신의 正體性과 同一性을 의미한다. 자신의 우연성·잠정성·가변성을 관통하여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확신하는 본질적·영구적·불변적인 自身을 主體라 부른다. 그것은 我執의 대상인 타성적·습관적 自我가 아니라 부단히 自身을 超克하고 創造함으로써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지성이며 자유 의지요, 진리 탐구 활동이다.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 天上에 홀로 있다가 때를 보아 歷史的인 人間社會에로 강림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간사회 속에 맺어진 인간관계의 脈絡이요, 總和 이외 별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리이스인은 인간을 政治·社會的 動物이라 규정하지 않았던가. 실로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인간은 社會內에 있고(man-in-society) 또한 社會는 人間內에 있다(society-in-man)고 하겠다. 그러기에 인간의 自己正體性은 언제나 社會·歷史的 正體性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어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진정한 주체성은 자신이 유일한 個體이면서도 普遍的·客觀的인 역사·사회적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自己正體性이라 하겠다.

#### IV

大學은 知性共同體(intellectual community)이다. 일반사회의 구조와 성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회가 인간사회인 한에서는 대학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이상적으로는 언제나 지성공동체를 志向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기술사회라 하더라도 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과 목적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인간적 보편성을 추구하게 하며 이것이 文化를 창조하게 하고 아울러 대학은 그러한 文化創造의 産室이 된다. 문화의 창조가 진리라는 보편성과 자유라는 창의성을 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터이기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은 技術的·道具的 理性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술사회에서도 古典的 大學理念은 여전히 健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사회의 인간은 原子的 個人도 아니고 그렇다고 沒個性的 全體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理念型的 인간을 우리는 主體的 人間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主體的 人間的 社會性을 가장 典型的으로 實現해야 할 大學을 知性共同體로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現代社會의 성격 규명과 함께 自由·眞理·知性의 의미를 共同體의으로 파악하는 일은 大學의 가장 중요한 현대적 과제라 하겠다.\*